LG그룹, ‘슈퍼스타트’ 출범 스타트업 육성 1500억 투입

LG그룹은 3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자해 유망 스타트업 300개를 키운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청년사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슈퍼스타트’를 출범했다. 슈퍼스타트는 계열사와 외부 파트너를 유망 스타트업과 연결해 주는 그룹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LG는 사업화 검증(PoC)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LG사이언스파크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망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협력, 사업협력, 투자유치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협력 파트너들에게 연결해주는 원스톱 지원을 한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슈퍼스타트 인큐베이터’를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LG사이언스파크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업무공간 ‘오픈랩’은 ‘슈퍼스타트 랩’으로 개편한다.

LG는 16일과 17일 열리는 ‘산업은행넥스트라이즈’에 참가해 슈퍼스타트 브랜드를 알리고 유니콘 발굴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스타트업 행사 ‘슈퍼스타트 데이’를 개최한다. 이달 말부터 공개 모집한다. 김명근 기자

홈플러스 방학점, 메가푸드마켓으로 재단장

홈플러스 방학점이 9일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세상의 모든 맛이 홈플러스에 다 있다’는 테마로 상품 차별화와 쇼핑 최적화를 구현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강점인 ‘고객 경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3305m² 규모의 지하 2층 전체를 식품 매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카테고리별 먹거리 구색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월드 푸드 마켓’ 콘셉트를 강조했다. 고객 주문 시 ‘1855’ 블랙앵거스 스테이크를 즉석 손질해 제공하며, 인기 양념류를 한데 모은 ‘월드 소스’ 코너와 다채로운 이색 열대 과일 매대도 확대 구성했다. 또 상온·냉장·냉동 간편식과 수입 디저트 등 800여 개 상품을 총망라한 ‘다이닝 스트리트’, 복고·이색 상품 등 180여 종을 갖춘 ‘라면 박물관’, 저가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1200여 종의 와인을 선보이는 ‘더 와인 셀러’ 등을 선보였다.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치질수술? 통증 줄고 하루만에 퇴원!

더운 여름에는 항문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다. 더위로 인해 항문의 혈관이 확장되면 치질이 악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치질은 증상을 방치한다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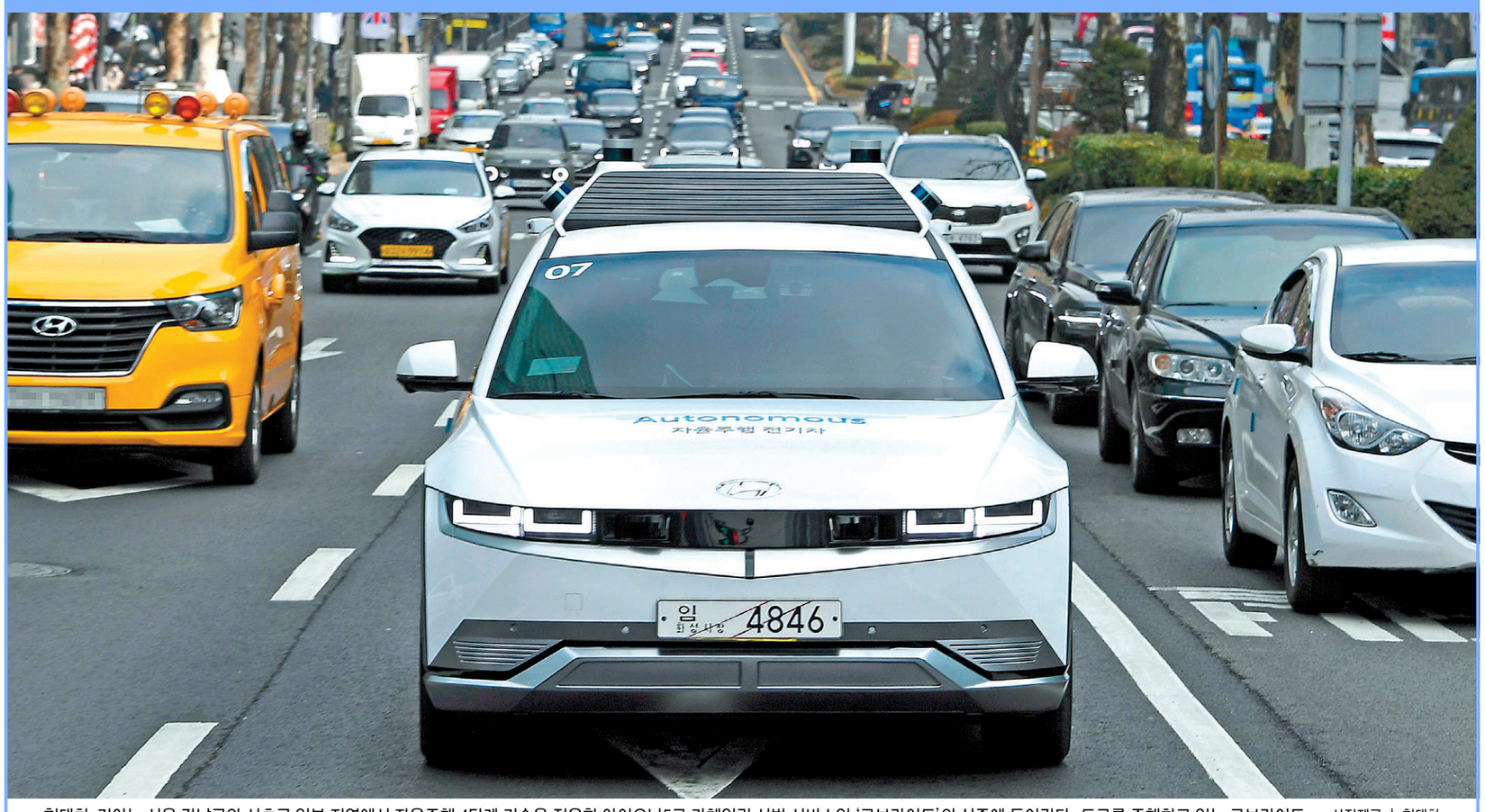
가장 흔한 치핵은 항문 주변에 피가 몰려 주위 피부 조직이 붓거나 늘어지면서 크기가 커져 항문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치열은 항문관 부위가 찢어지는 단계로 딱딱한 대변을 볼 때 항문관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아 피부가 찢어지면서 치열이 발생하게 된다. 치루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염증이 발생해 고름이나 분비물이 배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핵의 경우 1~2기는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등의 보존적 치료법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고 지속적인 통증과 출혈이 생기거나 이미 3~4기 정도로 진행했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보얀트 파인퓨전 치질 수술이 도입되면서 수술에 대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크게 줄였고 회복 기간도 단축했다. 늘어난 조직을 절제하는 동시에 혈액을 응고시켜 따로 봉합하지 않아도 되는 솔루션이다. 짧은 수술 시간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회복 과정에서 통증도 비교적 적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나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만족도 높은 치료를 위해서는 정밀 진단이 중요하며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정확한 진료를 지원할 검사 기기가 필요하다. 고화질 3D 촬영이 가능한 초음파 영상기기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검단 한상준항외과 한상준 원장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4단계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시작



현대차·기아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5로 카헤일링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의 실증에 들어간다.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로보라이드. 사진제공 | 현대차

“레벨4 자율주행차, 혼잡한 강남 달린다”

원희룡 장관·오세훈 시장 첫 시승
8월부터 일반 고객에 서비스 확대
방대한 데이터 확보해 기술 고도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기아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5로 카헤일링(호출형 차량 공유)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RoboRide)’의 실증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로보라이드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탑승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날 시범 서비스 실증을 기념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번째 고객으로 테헤란로 일대에서 로보라이드를 시승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차·기아는 내부 기준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고객 체험단을 구성해 초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뒤, 이르면 8월부터 일반 고객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운영에는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진모빌리티’도 참여한다.

9일 열린 현대차·기아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시승행사에 참석한 이성욱 진모빌리티 대표, 박정국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 사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공영운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현대차

●왕복 14차로 영동대로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는 강남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이다. 왕복 14차로의 영동대로, 왕복 10차로의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포함하고 있다. 버스와 트럭부터 승용차 및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사람이 운전할 때도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 같이 혼잡한 도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기아는 서울시와 협력해 교통신호와 자율주행차가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2019년부터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거듭하며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쌓았다.

현대차·기아는 자체 개발한 관제 시스템을 서비스함으로써 자율주행 상태와 차량 상태,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공사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자율주행이 힘든 상황에서는 차로 변경 기능 등을 원격으로 보조해 안전성을 높였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더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레벨4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최첨단 자율주행기술이 집약된 전기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라이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시범 서비스에 두 대를 투입한다. 향후 주행 안정성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해가며 차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헤일링 서비스 아이엠을 운영하는 진모빌리티와 협력한다. 진모빌리티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제 배차 기술(AI가 15분 후의 교통상황을 예측)과 핀테크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로, 아이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번 시범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사업부장 장웅준 전무는 “현대차·기아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양산을 통해 검증 완료한 ADAS(첨단 운전자지원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레벨4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개발해 온 기술을 실증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자율주행 등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비상 운전자 1인이 운전석에 탑승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승객은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T, 네트워크·AI 등 27조원 투자, 2만8000명 채용한다

민영화 20주년 맞아 ‘디지코’ 가속화

KT가 2026년까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에 27조 원을 투자한다. 또 2만8000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KT그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로의 변화를 더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먼저 네트워크 인프라 등 텔코(통신기업) 분야에 5년 동안 12조 원 을 투입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DR(재난복구)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추가 구축하는 등 네트워크 신뢰성을 높이고, 6G 핵심기술 선제 연구·개발 등 디지털 인프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AI, 로봇, 클라우드, 미디어·콘텐츠 등 디지코 분야에도 12조 원을 투자한다. KT는 AI, 빅데이터 기술과 국내 최대 콜센터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AICC(AI 기반 고객센터)같은 신사업을 제시했고, ‘기가지니’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한 로봇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들 주력 신사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영상AI, 초거대 AI사업 등을 발굴하고 로봇플랫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독립법인 KT클라우드를 설립한 KT는 클라우드·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는 약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HAC)’ 서비스를 필두로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AI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미디어 경쟁력 강화와 K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는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8일 KT클라우드 출정식에 참석한 구현모 KT 대표. 사진제공 | KT

KT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에도 5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이블스쿨’ 등 디지털 인재 양성

KT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만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우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형을 신설하는 등 역량 중심 인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AI인재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을 통해선 5년 동안 전국 단위 약 5000명의 디지털인재를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개발, 경영인프라 혁신 등 지원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초연결 인프라와 디지코 영역 등 적극적 미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27조 원 투자와는 별개로 콘텐츠 수급을 위해 약 6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